

# 사슴 조사료 수급제도 개선 시급



이 덕 신  
한국양록협회 회장

국내 산야에 풍부한 갈잎과 상수리잎 등 각종 산야초를 우리 양록농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외국의 갈잎이나 알팔파에 의지하는 것은 인건비의 상승과 이를 채취할만한 노동력 부족이라 생각되나, 외국산 사료에 의지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90년부터 중국산 갈잎 수입이 개시되어 매년 2만여톤에 이르는 물량이 국내 양록농가에 공급되고 있으나 품질 불량과 공급시기 지연으로 농가들로부터 불신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생산자나 국내 수입업자들의 개선의지는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가격만 인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내에 도착된 중국산 조사료를

수차 확인한 결과 지난해 보다 더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도 5~10% 인상되어 시급히 수급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토록 농가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온 중국산 조사료 공급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업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품질의 시비로 반품시키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사슴먹이가 바닥나 큰일 났다며 최대한 빨리 보내줄것을 독촉하는 농가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신청한 물량을 취소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새로 신청하는 농가들도 있어 불안한 양록인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오직 강력한 수급제도 개선 밖에 없다고 사료되며 이의 대책을 구상중이나, 금년도 본회에 신청한 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 월동용 조사료 공동구매 사업은 공급되는 조사료의 품질개선 및 가격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협회 살림의 재원조달에 있습니다.

사슴을 기르는 1만 양록인 전체가 회비를 납입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현실속에서 조사료 공동구매 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

으면 안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같은 현실을 이해하고 본회의 공동구매 사업에 묵묵히 동참해 주시는 회원들은 양록발전의 초석이며 선구자 이십니다.

본회는 조사료 공동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양질의 제품을 적정가격에 공급하고자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지난날의 불신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신념에서 지난 10월12일부터 알팔과 베일 1차분을 일부 신청농가에 공급하여 품질이 대단히 만족할만 하다는 평가를 들은바 있으며, 알팔과 베일 잔량과 큐브는 원산지에서 직수입하여 12월 중순까지 농가에 전량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년 가을 수입공급되는 중국산 갈잎과 상수리잎의 품질은 부패율이 높은 불량품이기에 업자의 구매요청을 엄밀히 고려하여 양질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지에서 선별 생산한 갈잎을 11월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년 중국산 갈잎과 상수리잎의 품질이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 되는 것은 생산자들이 미숙한 갈잎을 장마철인 7~8월에 채취하여 야외 건조과정에서 비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중량을 높이기 위해 나무가지를 혼합한 상태로 압축포장하여 색상이 변색되고 속이 썩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마철에 갈잎과 상수리잎을 채취하는 것은 중국 생산자의 자질문제도 있으나 사료자급 대책없이 외국의 조사료에 의존하려는 국내 일부 양록농가들의 조기공급 요구도 한몫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갈잎과 상수리잎의 정품(正品)을 우리 양록농가가 제대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완숙기인 9월에 채취·생산 → 10월에 포장·출하 → 11월 국내 반입 → 12월 농가공급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양록농가들의 의식전환과 대책이 선행되어야 중국산 조사료의 품질개선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 없이는 중국산 갈잎이나 상수리잎의 품질개선은 기대할 수 없고, 설사 공급받더라도 양질의 제품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백년하청일 뿐입니다.

본회에서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올해의 월동용 조사료 공급이 마무리되는 대로 종합 분석하여 내년부터 강력한 사슴 조사료 수급제도 개선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갈잎과 상수리잎을 능가할만한 대체사료 개발은 물론, 이왕 들어오는 제품이라면 농가들에게 실망을 주지않는 양질의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사슴에게 갈잎이나 상수리잎을 급여하지 않으면 한국양록업은 아무런 특성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료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환경요인 즉,사계절이 분명한 삼한사온의 기후풍토가 중요한 강점이라고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양록농가에서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며, 사슴의 건강과 녹용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저질 불량품 조사료 구입에 미련을 갖기 보다는 품질이 개선될때 까지만이라도 신중히 대체사료 마련에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본회에서도 중국인의 의리없는 상술에서 비롯되었든, 우리나라 갈잎 공급업자의 치열한 물량확보 경쟁에서 비롯되었든 저질 불량품의 갈잎 유입을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는게 확고한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슴 조사료 수급제도 개선의 일대 혁신을 꾀해 우리의 사슴이, 우리의 양록인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